

2020학년도 제 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이정규	90228								
개최일시	2020년 11월 12일(목) 오후2시	회의장소 담당부서	행정관 605호 기획팀										
참석의원	노명희, 서채원, 송기창, 여인권, 윤휘수, 임지혜, 전라옥, 홍규덕, 흥석환	기록자(간사)	이정규	기록일	2020.10.14								
		불참의원	김홍갑, 이성림, 육정원										
		기타참석자	없음										
안건	1.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 심의												
배포자료 및 기타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안)												
<b>■ 심의(자문) 사항</b>													
<p>1. 의장은 총 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p> <p>2. 의장은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p> <p>3. 홍규덕 의원은 기획처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제화 활성화와 외국인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비대면 교육으로 교육받아 선배들과 동기들끼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2020학년도 신입학 학생들이 학교의 주된 역할을 하는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던 장점·전통이 단절될 수도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문의하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입학 전 집체교육을 통해 이러한 정체성을 체내화하고 유지해가고 있음도 부연 설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변화 동향으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캠퍼스 스마트화로 VR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시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준비를 고려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법인 재단 전입금에 대한 계획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다.</p> <p>이정규 기획팀장은 디지털정보혁신처로 확대 개편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최근 신설하였음을 설명하다. 내부 학생에 대한 원격교육 강화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 또한 현지에서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 학생 유치 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p> <p>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 신입생들의 입학 전 소속감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취소·축소되었고,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왔음을 설명하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축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성과와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부연 설명하다. 올해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소속감과 친밀감 강화를 위한 대면 못지않은 내실화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임도 이야기하다.</p> <p>우리 대학과 타 대학(연세대학교, 포항공과대학 등)과의 플랫폼 중심의 온라인 교육 공유 개념의 프로그램을 검토·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다.</p> <p>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을 구매한 임대료 수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숙명 브랜드화를 통한 자회사 설립 등을 법인과 협의,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p> <p>4. 전라옥 의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고도화임에도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이 없이 평의하게 나열된 모습이며, 어떠한 부분이 고도화되어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다.</p>													

<b>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013067 030224

## ■ 심의(자문) 사항

3주기 대학 기본역량평가에서 발전계획과 관련된 지표의 진단 요소를 근거로 모든 발전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닌, 기존 발전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화시킬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이야기하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대안이 교육과 연구, 또한 이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세 가지 틀에서 제시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신임 총장의 공약사항을 기준 발전계획에 문구를 교체하는 정도의 발전계획은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다.

5. 홍석환 의원은 발전계획 고도화에 대학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는 것 같으며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 입장에서 세 가지 조언을 하다. 첫째,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와 발전전략의 내용 두 가지는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을 이야기하다. 둘째, 비전·전략·추진과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다. 추진전략의 결과달성을 통해 최종 이루어질 결과와 수치화된 결과의 목표값이 눈에 띠지 않음과 연도가 명기되어 있는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연도별 목표와 실천 방법, 집행률 등이 영역별로 하나라도 제시되었어야 함을 이야기하다. 셋째로, 본 발전계획을 기획처 차원의 보고용이 아닌 숙명의 모든 구성원에게 어떻게 내재화, 실천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과 노력도 담겨있어야 함을 지적하다.

이정규 팀장은 연도별 계획과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값이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교육역량 지표 등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목표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12월에 진행될 보직자 연수를 통해 조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목표를 수립하여 보완하겠음을 이야기하다.

6. 의장은 3주기 평가와 관련하여 발전계획 고도화 추진 배경 그림에 학과(전공)와 학생들에 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다. 학과(전공)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 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3주기 평가 준비 시 증빙자료 마련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조언하다.

7. 송기창 의원은 신임 총장 취임 후 2개월이 완전히 지난 현시점에서 새로운 발전계획이 크게 눈에 띠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다. 신임 총장 취임 전부터 TF를 구성하여 신임 총장의 비전과 공약이 반영된 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과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비를 위해 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담긴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행정 시스템에 미흡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발전계획은 확정된 발전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다. 발전계획에는 목표, 비전, 전략, 세부 과제, 재정 계획이 연동되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현재의 발전계획 고도화에는 예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생략된 문제점을 지적하다.

발전계획 중 핵심 수정내용(목표, 전략,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다.

이정규 팀장은 빠른 시기에 조언받은 내용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완성된 발전계획을 심의받겠음을 이야기하다.

8. 홍규덕 의원은 평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인 연도별 목표치가 드러나야 하는 점, 기획 시스템 체계를 바꿔 주실 것, 코로나로 인한 시대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한 집중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난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다.

발전계획고도화 6p의 ‘대내외 환경 중 운영효율성 및 다각화 확대’라는 방향성의 경우 ‘다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이정규 팀장은 운영 주체가 학교 행정본부뿐 아니라 학생과 외부기관 등으로 확대된 것임을 답하다.

##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이경규	890202	

### ■ 심의(자문) 사항

홍규덕 의원은 32p의 ‘세계를 품은’의 의미와 ‘창의·융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토대를 보여 주어야 함도 이야기하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50개가 넘는 학과(부)가 있지만 소수 인원 학과(부)의 경우 영세함으로 인한 어려움과 새로운 활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현재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안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교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도출하여 우리 학교만의 색채를 나타내는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다.

9. 송기창 의원은 31p에서 비전이 바뀜에 따라 목표도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다.
10. 전라옥 의원은 슬로건 ‘숙명적 혁신’의 의미가 무엇임을 질의하고, 이정규 팀장은 숙명적이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로 숙명만이 할 수 있는 혁신, 숙명이 해야 하는 혁신이라고 답하다. 전라옥 의원은 숙명적으로 강조해야 할 요소를 찾아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하다.
11. 임지혜 의원은 2024년도까지의 4년간의 발전계획(안)을 만들에 있어서 PPT 자료 보다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내용이 담긴 자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다. 또한 코로나 시대 타 대학과 비교될 수 있는 경쟁력과 강점을 살린 계획을 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12. 의장은 발전계획에 관한 내용이 구성원 전체에 공유되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고도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계획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다.
- 이정규 팀장은 이번 평의원회에서는 발전계획 전문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 발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방향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고 이후 완성된 발전계획을 다시 심의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다.
13. 서채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학사운영과 추진할 구체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정규 팀장은 세부 과제는 12월 17일 보직자 연수를 통하여 구체화할 예정임을 답변하다.
- 송기창 의원은 본 발전계획을 45개 과제를 세부 추진계획을 각처에 할당하여 수합하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발전계획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다.
- 의장은 45개 발전계획 실행과제 중 ‘33. 기부 채널 다양화 과제’에 총장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500억 기부금 모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총장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추진과제에 그대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다. 추진과제와 관련된 담당 부서를 통해 현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해야 함을 이야기하다. 교무위원회에서 발전계획 고도화 심의 시 나온 의견은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다. 이정규 팀장은 교무위원회에서 체계도 부분에서 각 전략의 연계성 부분, 슬로건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답하다. 의장은 교무위원회에서 받은 의견을 새로운 발전계획에 수정·반영해 줄 것을 이야기하다.
14. 송기창 의원은 교수들은 행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기 때문에 발전계획에 행정혁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다.
15. 홍석환 의원은 과제 기준이 2018년도 발전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질의하고 이정규 팀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홍석환 의원은 과거의 추진 되었던 실적 결과를 파악하여 실행 불가능한 과제는 아예 없애고 새롭게 작업해야 하며, 기존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작업 수준의 발전계획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추진 과제는 추진 기간 중 실천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시한 추진과제를 통해 비전인 ‘세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숙명’을 2024년도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함도 지적하다.
15. 의장과 의원들은 발전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평의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의장은 15시 40분에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다.

## 2020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 참석의원 서명

의장 <u>여인권</u>	부의장 <u>윤휘수</u> (인)
의원 <u>노명희</u>	의원 <u>서채원</u>
의원 <u>송기창</u>	의원 <u>임지혜</u>
의원 <u>전라옥</u> (인)	의원 <u>홍규덕</u> (인)
의원 <u>홍석화</u> (인)	